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슬픔 속 희망 찾기' 유가족 성지순례 참여 후기

슬픔 속 희망을 찾아서 - 나에게로 가는 길, Remember me

소화데레사

6월 8일 한마음한몸 유가족 성지순례. 마치 성모님께서 우리 유가족들을 포근하게 감싸주듯 새벽 비가 촉촉하게 내렸다. 언니와 조카는 1년 전 전주 전동성당 앞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20여장의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다. 파스텔톤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이상하게 나는 불안했다. 언니가 금방 어디론가 떠날 것처럼 느껴졌다. 그랬기에 언니와 조카가 떠난 지금 전주성지순례를 갈까말까 많이 망설였다. 그럼에도 나는 왜 떠나는 것일까? 왜 주님은 한국 최초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가 있는 곳에 나를 초대하시는 걸까?

9일기도와 성지 영상자료를 묵상하며 순례를 준비한 우리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출발했다. 한마음한몸의 세심한 배려로 숙소도 거룩했고 정원이 있는 식당은 유럽 어딘가에 와 있는 것 같았다. 한 자매님과 해질 무렵까지 정원에서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아무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안다. 자매님도 동생을 잃으셨다.

저녁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나에게로 가는 길' 앨범꾸미기를 하고 나서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마음한몸 자조모임에서 큰 은총을 항상 받지만 우리는 또 위로하고 위로받았다.

나는 이미지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심을 생각했고 가족과의 깊은 사랑에 울컥했고 다시 고통의 파도가 치더라도 끝까지 하느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순교자적 사명으로 천국소망의 열쇠를 품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다음 날 치명자산 순례에 오르면서 다시금 초청해 주신 예수님, 성모님의 은총과 치유에 감사했다. 하느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순례길을 내내 시원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셨다. 조금은 두려웠던 전동성당에서 성당과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예쁜 한복을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 가족을 보았다. 수국꽃 같은 그 모습을 보고 있다보니 시간 이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내가 시간여행자가 되어 언니와 조카의 1년 전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다. "언니와 조카도 저렇게 항상 행복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게 언니가 나에게 남긴 사랑인 것 같다고 곁에 있던 자매님이 말했다. 순간 언니와 조카의 행복했던 시절이 떠오르며 가슴을 누르고 있던 묵직한 돌덩이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래, 언니의 사랑만 기억하고 그리워하자.

나는 또 슬픔 속 희망 찾기 유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듬뿍 받았다. 이 사랑은 나에게 살아갈 희망을 잡게 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할 것이다.

**자살
예방사업
후원하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예방과 유가족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가치를 전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후원 계좌 _ 우리은행 1005-380-307979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 문의 _ 02-774-3488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